

젠더주의의 이론적 근거인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현숙경 한국침례신학대 실용영어학과 교수
바른인권여성연구소 “세움” 소장

I. 들어가면서

미국의 철학자, 젠더 이론가, 그리고 레즈비언인 주디스 버틀러는 1990년에 『젠더 트러블』을 출간하면서 학계의 슈퍼스타로 급부상하였다. 그녀의 젠더 이론은 기존 페미니즘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으며, 이로써 그녀는 퀴어 이론의 선구자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녀의 자연 질서의 틀을 깨는 그녀의 급진적인 젠더 이론은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90년대부터 현재까지 사회에 물의를 빚고 있는데, 이는 버틀러 본인도 아는 바이다. 그리고 현재 무엇보다도 그녀가 위험한 인물로 지목되는 이유는 그녀의 젠더 이론은 현재 남녀 이외의 다른 성이 존재한다는 주장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에 등장하는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 개념의 이론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버틀러의 젠더 개념은 그녀의 대표적인 저서인 『젠더 트러블』(Gender Trouble)(1990)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본 발표는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을 중심으로 젠더 이론의 근원과 문제점을 짚어보겠다.

II. 버틀러의 젠더 이론의 기원과 문제점

버틀러는 『젠더 트러블』의 “1999년 서문”에서 “나는 프랑스의 후기 구조주의를 바탕으로 내 주장을 밝혔다”라고 명시함으로써 본인의 젠더 개념의 이론적 토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¹⁾ 그리고 더 나아가 그녀는 단순히 “후기구조주의를 페미니즘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페미니즘을 재구성하는 데(feminist reformulation)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다.²⁾ 후기구조주의는 현재 포스트모더니즘 사조의 기본적인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언어학에서 파생된 이론인데, 버틀러는 그 이론을 기반으로 기존의 페미니즘적 틀을 허물며 새로운 젠더 개념을 정립한다.

1. 버틀러의 젠더 개념의 근간이 되는 포스트모더니즘/후기구조주의

버틀러는 『젠더 트러블』의 “1999년 서문”에 그녀의 젠더 개념의 근원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나는 어떤 특정한 형태의 젠더 표현을 거짓된 것, 혹은 파생된 것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다른 형태의

1) Judith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Routledge: New York, 1999. viii.

2) Ibid., ix.

젠더 표현을 진리(truth), 혹은 원래의 형태(original)로 것으로 규정해버리는 진리의 체제들에 반대했다. 본 저서의 목적은 특정한 형태의 젠더만 실제 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젠더에 대한 가능성의 영역을 여는 것이었다. 본 저서는 또한 소수의 (비이성애적) 젠더 관행과 성적 관행을 비합법화 (delegitimate)하기 위해 진리라는 담론의 권력을 휘두르려는 모든 노력을 약화시키려 했다."³⁾

버틀러의 젠더 개념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truth)를 철저히 부정하는 후기구조주의/포스트모더니즘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버틀러는 진리를 “담론의 권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녀에게 있어서 진리란 절대적이고 역사와 문화를 초월하는 불변의 것이 아니라 서구 사회가 그 동안 규정해온 하나의 담론에 불과하며 이것이 사회를 지배하는 억압적인 성격을 띠는 의미로서 대표적인 후기구조주의자인 푸코의 담론 개념을 접목시켰다. 그러면 버틀러의 젠더 개념의 기틀이 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1)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은 60년대 여성운동, 68혁명, 인권운동, 신좌파세력(문화막시즘)의 등장과 함께 프랑스와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시대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 키워드로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해체”(deconstruction)와 장 프랑스와 리오타르(Jean-Francois Lyotard)의 “거대담론에 대한 불신”(incredulity towards meta-narrative)⁴⁾을 들 수 있는데, 이 두 개념은 공통적으로 그 동안 이 세상을 하나로 엮는 사상 체계, 혹은 거대담론으로서의 역할을 한 서구의 전통 세계관(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한 불신과 더 나아가 해체를 의미한다.

18세기 계몽주의로부터 1950년대까지를 아우르는 모더니즘(근대주의)은 보편적 이성, 합리주의, 객관성, 보편적 가치와 질서,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던 시대라고 한다면, 60년대 이후의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적 사고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이념으로서, 탈이성주의, 다원주의, 상대주의, 우연성, 사회와 문화에 기반한 주관적 진리들, 유동성, 탈중심적 사고 등의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다.

2) 반과학적인 포스트모더니즘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위에 나열된 키워드에 담겨진 포스트모던적 사고는 철저히 반과학적이라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실재의 존재 여부를 철저히 배제하는 사상가들로서 자신의 이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을 거부하며,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포스트모더니스트 앨런 블룸(Allan Bloom)은 인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은 문화적 존재이며 자연적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 본질적(생물학적)으로 지니는 것은 문화로부터 획득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

3) Ibid., viii.

4) Jean-François Lyotard.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Trans. Geoff Bennington and Brian Massumi.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84. 24.

것도 아니다. 문화는 그것을 동반하고 표현하는 언어와 마찬가지로, 우연한 사건들일 뿐인데 혼합되어 인간의 구성 요소가 되는 일관된 의미를 구성한다.”⁵⁾ 블룸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실재 존재하는 자연적인, 본질적인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며 문화적인 요소만을 의미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연한 사건들”의 혼합일 뿐이라는 것이지만 결국 이러한 우연한 사건들이 재구성되어 자연적인 요소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실재를 완전히 배제하고 문화만 강조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문화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사고와 인식만이 세상을 이해하는 요소로 남았다. 이러한 사고는 결과적으로 실재의 존재를 철저히 간과함으로써 과학과 첨예한 대립을 가져온다.

이러한 반과학적인 포스트모던 개념은 주디스 버틀러의 반생물학적인 젠더 개념에 그대로 적용된다. 즉, 버틀러는 사회문화적 구성물인 젠더 개념만이 의미 있는 것이고 실제 존재하는 생물학적인 성은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한다. 생물학적 성, 즉 물질화된 몸은 아무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한낱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버틀러는 기존 페미니즘이 의미하는 젠더 개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면서 “퀴어 이론”을 탄생시켰다. 이로써 버틀러를 기점으로 페미니즘은 90년대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의 페미니즘을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혹은 젠더주의라고 설명할 수 있다.

3) 버틀러의 젠더 개념에 접목된 푸코의 담론과 권력

앞에서 언급했듯이 버틀러는 서문에서 진리를 “담론의 권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담론과 권력의 관계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핵심 개념이다.⁶⁾ 푸코가 『성의 역사』(*The History of Sexuality, Volume 1: Introduction*)와 『광기와 문명』(*Madness and Civilization*)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요지는 결국 광기(madness)나 성적 부도덕함(sexual immorality)이라는 개념은 사회나 역사를 초월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역사적 장 속에서 특수하게 형성되는 하나의 담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어떤 사회의 지배계급이 나름대로 “광기”나 “성적 부도덕함”의 의미를 언어로 규정한 후(미치광이가 성적 부도덕함을 규정하는 선을 정하는 것) 그 범주에 속한 자들을 사회 대다수의 사람으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치료를 함으로써 담론이 만들어지고 하나의 권력으로서 작용하게 되는데 광기나 성적 부도덕함이라는 기준이 사회, 역사적 특성에 따라 바뀐다는 것이다(선이 때로는 재규정된다는 것이다). 담론은 한 사회의 지배계급이

5) Allan Bloom, *Closing of the American Mind*, New York: Simon & Schuster, 1987. 190.

6) 사회학자 및 동성애자였던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텍스트, 혹은 언어와 사회/역사와의 관계, 즉 “담론”(discourse)의 형성과정과 이를 통한 사회적 권력의 작용을 풀어나가면서 근본적인 의미의 절대성을 부정했다. 어떤 담론, 혹은 당시에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사고/개념을 통시적 관점의 분석을 통해 의미는 고정된 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푸코는 담론의 내용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그 담론을 둘러싼 관계, 즉 지식을 규정하는 권력에 의해서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에 관심을 두었다. 예를 들어 『광기와 문명: 이성의 시대의 광기의 역사』(*Madness and Civilization: A History of Insanity in the Age of Reason*)에서 푸코는 광기를 규정하는 담론이 어떻게 시대별로 달랐으며 이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권력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살펴보았다.

사회 전반에 대한 지배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한다. 즉,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도 시대와 문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하나의 담론에 지나지 않으며 이 진리가 사회에 권력체계로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버틀러는 푸코의 담론과 권력의 개념을 본인의 젠더 개념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즉, 버틀러는 이 사회가 남성과 여성, 두 성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불변의 진리로 못 박아버렸다고 지적한다. 즉, 이성애 중심의 사회를 진리로 규정짓는 것은 단지 이 사회의 담론에 불과하며 그 “진리라는 담론의 권력”이 비이성애자들과 규범에서 벗어나는 성적 행위를 비합법화(delegitimate)“해버렸다고 비판한다. 이로써 버틀러는 지속적으로 이성애 중심 사회체제를 허물려는 시도를 한다.

2. 이분법적 젠더 해체를 통한 젠더 개념의 확장

버틀러는 『젠더 트러블』의 1999년 서문에 본 저서의 목적이 이분법적 젠더 개념을 해체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나는 어떤 특정한 형태의 젠더 표현을 거짓된 것, 혹은 파생된 것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다른 형태의 젠더 표현을 진리(truth), 혹은 원래의 형태(original)로 것으로 규정해버리는 진리의 체제들에 반대했다. . . . 본 저서의 목적은 특정한 형태의 젠더만 실제 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젠더에 대한 가능성의 영역을 여는 것이었다. 본 저서는 또한 소수의 (비이성애적) 젠더 관행과 성적 관행을 비합법화하기 위해 진리라는 담론의 권력을 휘두르려는 모든 노력을 약화시키려 했다.”⁷⁾

위에서 말하는 “특정한 형태의 젠더”란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성애적 의미의 젠더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 의미에서 벗어나 “젠더에 대한 가능성의 영역”을 열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소수의(비이성애적) 젠더 관행과 성적 관행”의 영역까지를 확장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성애 중심의 사회를 진리로 규정짓는 것은 단지 이 사회의 담론에 불과하며 그 “진리라는 담론의 권력”이 비이성애자들과 규범에서 벗어나는 성적 행위를 비합법화“해버렸다고 비판한다. 이렇듯 버틀러는 이성애 중심 사회체제에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그 체제를 허물려는 시도를 한다.

여기에서 버틀러의 젠더 개념과 페미니즘(2세대)에서 의미하는 젠더의 차이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2세대 페미니즘은 가부장제를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근원이라고 여겼으며 가부장제 해체를 통한 남녀평등을 궁극적 목표로 삼았다. 여성은 남성에게 의해서 지속적으로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데 그 원인은 결국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 때문이며, 그 차이는 바로 임신과 출산 여부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결국 여성의 몸(섹스)은 임신과 출산, 양육(모우수유)를 통해서 가부장제에 순응하는 여자가 되도록(젠더) 강요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페미니스트의 대모인 시몬 드 보부아르의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가 의미하는 바이다.

7) Judith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Routledge: New York, 1999. viii.

요컨대, 2세대 페미니즘은 생물학적인 차이(섹스)에서 성불평등의 원인을 찾았고 이러한 생물학적인 차이로 인해서 여성은 사회 문화 속에서 지속적인 불평등을 겪으며 여성으로서의 특정한 행동과 성향을 요구 받는다고(젠더) 주장한다. 결국 타고난 성(섹스)으로 인해서 젠더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들이 타고난 성을 거부할 때 비로소 젠더 규범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버틀러는 페미니즘의 이분법적인 젠더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놓는다. 『젠더 트러블』의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페미니즘적 젠더 개념에 트러블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버틀러도 가부장제를 매우 비판적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가부장제가 결국 남성과 여성만을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기존의 가부장제는 결국 이성애중심적인 개념이며 그 이분법에 포함되지 않는 자들을 배제해버리는, 즉 “젠더 규범의 폭력(the violence of gender norms)을 행세하고 있다고 비판한다.⁸⁾

3. 생물학적인 성을 철저히 배제하는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개념

버틀러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젠더 수행성”(gender performativity)이다. 이는 “행위”부분에 더 중점을 두는 개념으로서 생물학적인 성을 철저히 배제한다. 버틀러는 “젠더 수행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젠더적 표현 뒤에 젠더 정체성이란 것은 없다: 젠더 정체성은 소위 정체성의 결과물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표현”에 의해 수행적으로 구성된다.”⁹⁾

결국 애초에 젠더 정체성이란 없고 이 정체성도 “표현” 혹은 행위를 통해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를 좀 더 쉽게 풀어보자. 버틀러의 주장에 따르면 이성애 지배적인 사회에서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기능, 혹은 여성으로서 요구되는 성적 행동을 강요받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여성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자연스럽게 남성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남성을 향한 반복적인 성적인 표현과 행위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강요당하고 그에 맞게 행동했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젠더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반복적인 성적 수행과 표현의 결과 젠더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는 논리에 의하면, 이성애적인 규범에서 벗어나는 성적 행위와 표현을 반복적으로 하면 그에 따라 젠더 정체성도 바뀔 수 있다는 위험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다. 반복적인 비이성애적 성적 표현 또는 행위를 통해서 기존의 이성애적 젠더 규범을 허물 수 있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버틀러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이다.

버틀러는 젠더를 단순히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다는 의미에만 국한시키지 않는다. “성적 행위(sexual practice)는 젠더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듯이 그녀에게 있어서 젠더란

8) Ibid., xix.

9) Ibid., 33.

“불안정화” 될 수 있고, 반복적인 성적 행위 혹은 성적 표현을 통해서 변형 가능한 성질의 것이다.¹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버틀리의 젠더 수행성 개념에 생물학적인 성은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의 페미니즘은 젠더를 섹스와 연관 지어서 이해했다면 버틀리는 젠더를 성적 행위(성적 지향)와 연관 지어서 이해한다. 즉, 버틀러에게 있어서 섹스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그녀에게 생물학적인 성은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몸(물질)에 불과하고 단지 반복적인 행위와 표현을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물질에 불과한 몸으로 어떠한 반복적인 행위를 하고 기능을 할 때에 비로소 그 생물학적인 몸이 젠더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타고난 성별(sex)은 전혀 아무 의미가 없다.

4. 섹스, 젠더, 성적 지향의 인과적 연속성의 해체

버틀리의 젠더 이론은 생물학적인 성(sex), 사회적인 성 정체성(gender identity), 그리고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의 개념을 완전히 분리시킨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요소는 원래 하나로서 절대 분리해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태어나면서 여성 염색체, 호르몬, 자궁, 뇌 구조, 체력을 지니고 태어난 여성은 그녀의 생물학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생각하며 행동한다. 즉, 타고난 생물학적, 심리학적 요소에 근거해서 그녀의 여성적인 성향과 특징, 즉 젠더 정체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생물학적인 성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여성은 자연스럽게 남성에게 끌리도록 되어 있다. 그러한 자연스러운 육적, 감정적, 정서적인 끌림을 기반으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며 가정을 꾸리며 다음 세대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의 인과적 연속성은 이분법적 성별 구분과 함께 인류를 지금까지 유지시켜온 마땅한 질서이다.

그러나 버틀리는 이 세 가지의 결합은 자연스럽게 유기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억압적인 이성애적 사회체제”을 강화하는 장치로서 지속적으로 “전제되고, 재연되고, 합리화”되어왔다고 비판한다.¹¹⁾ 그녀에게 있어서 생물학적인 성은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물질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요소 이전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섹스와 젠더를 구분 짓는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버틀리는 심지어 섹스도 젠더처럼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한다: “아마도 ‘섹스’라고 불리는 이 구성물은 젠더처럼 문화적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사실상, 섹스와 젠더는 전혀 구분될 수 없는 것으로 섹스는 이미 항상 젠더였을 것이다.”¹²⁾ 앞에서 버틀리의 “젠더 수행성”에서 언급했듯이 젠더라는 것은 결국 반복적인 수행의 결과로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젠더 개념은 성적 수행, 즉 성적 지향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지 섹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녀의 논리에 의하면 성적 지향으로 젠더 정체성이 형성되고 젠더 정체성은 결국 몸(섹스)을 통해서 구현되고 의미화된다. 원래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연속 개념인 이 세 가지 요소를

10) Ibid., xi.

11) Ibid., 30.

12) Ibid., 11.

버틀러는 하나하나 분리시켰을 뿐 아니라 그 순서도 거꾸로 뒤집어 놓음으로서 보편타당한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심각한 우를 범하고 있다.

5. 정상 규범의 해체로 인한 모든 일탈적 성적 행태의 정당화

이성애중심 규범을 해체하고자하는 버틀러의 주장은 비이성애적 성적 지향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버틀러는 그녀의 레즈비언적 성적 지향을 정당화하기 위해 후기구조주의자(자크 데리다, 미셸 푸코, 줄리아 크리스테바 등), 정신분석학자(지그문트 프로이트, 자크 라캉 등), 페미니스트(게일 루빈, 모니크 워티그, 루스 이리거레이, 엘레인 식수 등)들이 각자 그들만의 전통적 규범의 해체 논리를 이용하여 자신만의 퀴어 이론을 정립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퀴어 이론의 문제점은 단순히 동성애적 성적 지향만을 포함하는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퀴어라는 것은 정상 범주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태를 아우르는 표현으로서 이미 정상적인 이성애적 규범을 허물어버린 그녀의 논리에 의하면 결국 모든 형태의 비정상적 성적 행위가 용인된다.

존. E. 시리(John E. Seery)는 버틀러의 저서 『안티고네의 주장』(Antigone's Claim)¹³⁾에서 보이는 근친상간 옹호적인 태도를 강력하게 비난한다. 시리는 버틀러가 다양한 가족의 형태의 가능성을 열기위한 방안으로 근친상간 금기를 깨는 무모함을 지적하며 이러한 그녀의 “우회적 논리는 사실상 모든 이성애자들을 억압된 근친상간자들로 전락시켜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¹⁴⁾ 이와 함께 시리는 버틀러의 위험천만한 주장은 결국 수많은 일탈적 성적 행태를 용인하는 것이라면서 수십 가지의 입에 담기 힘든 성적 행태를 나열하면서 버틀러의 논리적 오류를 통렬하게 꼬집었다.¹⁵⁾

실제로 동성애는 물론이고 양성애,¹⁶⁾ 다자성애,¹⁷⁾ 근친상간,¹⁸⁾ 소아성애, 수간,¹⁹⁾ 시체성애²⁰⁾

13) 안티고네는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의 여주인공이며 소포클레스의 유명한 비극인 『오이디푸스 렉스』의 주인공 오이디푸스와 그의 어머니 이오키아스테 사이에서 낳은 딸이자 그의 여동생이다.

14) John E. Seery. "Acclaim for *Antigone's Claim* Reclaimed(or, Steiner contra Butler)." *Judith Butler's Precarious Politics: Critical Encounters*. Eds. Terrell Carver and Samuel A. Chambers. Routledge: London, 2008. 62-76.

15) 시리가 나열한 수십 가지의 일탈적 성적 관행은 다음과 같다: “간통, 일부다처제, 중혼(bigamy), 다른 인종 간 출산(miscegenation), 소아성애, 시체성애, 수간, 동물성애, 식인, 이혼, 후궁, 노예화, 페티시즘, 창녀, 흉악, 사디즘, 마조히즘, 사도마조히즘, 가학 성애, 자위, 트랜스섹슈얼리즘, 트랜스젠더리즘, 복장도착증, 자용동체, 가성반음양(pseudo-hermaphroditism), 남녀양성(androgyny), 여성 위반음양(gynandry), 색정증 등.

16) April S. Callis. "Playing with Butler and Foucault: Bisexuality and Queer Theory." *Journal of Bisexuality* 9.3-4(2008): 213-233. 본 논문의 저자는 버틀러와 푸코를 근거로 본인의 양성애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17) Ann Tweedy. "Polyamory as a Sexual Orientation." *University of Cincinnati Law Review* 79.4(2011): 1461-1515. 이 논문에서 앤 트위디는 다자성애(polyamory)도 성적 지향 중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주디스 버틀러와 미셸 푸코의 성에 대한 개념을 주된 논거로 삼고 있다.

18) J. Kilby. "Judith Butler, Incest, and the Question of Child's Love."

19) Carmen Dell-Aversano. "The Love whose Name Cannot be Spoken: Queering the Human-Animal Bond." *Journal for Critical Animal Studies* 8.1/2(2010): 73-125. 본 논문의 저자는 수간의 정당화 주장의 근거로 버틀러를 언급하고 있다.

등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분석 혹은 정당화하는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출판되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버틀러의 비이성애적 젠더 개념, 혹은 젠더 수행성 개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남녀의 관계만을 “정상적”인 범주로 용인하는 사회제도 자체를 비판함으로써 “정상”이라는 틀을 허물어버리는 버틀러는 이성애적 관계를 벗어나는 모든 형태의 비정상적이고 일탈적 관계도 다 용인될 수 있는 학술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III. 나가면서

주디스 버틀러는 인류 문명을 유지해온 보편타당한 질서, 즉 남녀의 자연 질서를 허무는 위험천만한 인물이다. 그녀는 새로운 젠더 개념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사회가 정상이라고 규정하는 규범 자체에 의문을 던지며 허물기를 시도했다. 이 사회에 규범이 만들어지고 규범으로 인한 이분화 과정에 속에서 어떻게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배제시켰는지 그 원리와 작용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경계를 흔들고 있다. 그녀가 허물고 있는 경계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섹스와 젠더의 경계
2. 이성애와 비이성애의 경계
3. 남자와 여자의 경계
4. 정상 vs. 비정상(퀴어)의 경계
5.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경계(->다양한 형태의 가족 인정)

이러한 경계 허물기는 동성애를 조장할 뿐 아니라 일탈적인 성적 행위를 조장하고, 비정상적 결합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가족에 포함시킴으로써 가족의 개념을 완전히 왜곡시켰다. 버틀러가 허물려고 하는 경계는 결국 보편타당한 도덕과 윤리적 질서에 기반하는 것으로서 오랜 세월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근간을 제공해온 매우 중요한 기틀이다.

버틀러도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젠더 이론이 논란의 중심에 있음을 매우 잘 알고 있다.²¹⁾ 그러한 그녀는 철저히 포스트모더니스트 겸 레즈비언의 입장에서 젠더 이론에 내포되어 있는 위험천만한 사회적 파괴력, 가족 파괴력을 우려하는 수많은 도덕 옹호론자, 가족 옹호론자들을 마치 시대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동성애 혐오자로 낙인찍어버렸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가치, 자연스러운 남녀의 생물학적 질서, 전통적 가족의 중요성 등을 수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소수자들을 억압하는 악의 세력으로 포장해버렸다.

20) Anna Chiara Corradino. "Performing Necrophilia: forms of female dominance in *Kissed* by Lynne Stopkewich, *Nekromantik* and *Nekromantik 2* by Jörg Buttgerit." *A Transdisciplinary Journal of Queer Theories and Studies* 3(2020): 373-400. 이 논문은 세 작품 속에 나타나는 여성의 시체성애를 성우월주의를 은폐하기 위한 행위의 표현으로 주장하면서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개념을 지속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21) Judith Butler. "Judith Butler: Your Behavior Creates Your Gender." *Big Think*. last updated 2011.06.07. <<https://www.youtube.com/watch?v=Bo7o2LYATDc>>.

사회의 모든 혼란과 무질서는 엄연히 존재하는 질서, 도덕과 윤리라는 기준이 허물어져갈 때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녀의 경계 허물기로 인해 실제 수많은 사람이 성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되었을 뿐 아니라, 서구 나라들을 중심으로 동성혼이 합법화되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됨으로써 보편타당한 가정의 질서에 순응하며 사는 수많은 가정이 위기로 몰리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심지어는 소아성애나 다른 일탈적 성행위를 허용하는 법 제정이 시도되고 있다. 이미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동성애 뿐 아니라 어떠한 일탈적 성행위도 용납되고 성별 구분도 무의미해지는 세상이 도래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버틀러의 젠더 개념의 위험성에 대한 논쟁은 20여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버틀러의 젠더의 허구성에 대항하여 유럽(프랑스, 독일,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바티칸 교황청 등)과 남미(브라질, 칠레,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 등지에서 반-젠더 운동이 한창이다. 이러한 본격적인 반-젠더 운동은 1995년 북경에서 열렸던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모든 회원국들에게 “젠더” 용어를 공식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사용하라는 행동강령의 발표와 함께 시작된 운동으로서 벌써 25년이 넘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반-젠더 운동은 더욱 활성화되어 버틀러의 젠더 개념의 위험성이 더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 그녀의 젠더 개념은 근원부터 잘못 된 것으로서 취사선택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며, 결국 무질서의 상태, 혹은 무정부주의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이 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려 이 사회와 우리 다음세대를 장악하기 전에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논찬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발표자	현숙경
		논찬자 (소속)	이승구 (합신대 교수)

2012년에 아도르노 상을 수상한 현대의 대표적인 젠더 이론가인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이론을 잘 분석하는 논문을 현숙경 교수님께서 써 주셨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 주장자들의 논의를 이렇게 차분히 논의해 가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할 작업의 하나인데, 버틀러에 대해서 이 작업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책은 그녀의 대표적인 책인 『젠더 트러블』(1990)을 잘 분석하면서 문제에 접근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1. 기여점

이 논의의 가장 큰 기여는 버틀러가 아주 의식적으로 “진리라는 담론의 권력을 휘두르려는 모든 노력을 약화시키려 했다.”는 점을 잘 드러낸 것입니다. 그녀가 포스트모던적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진리라는 말조차 방기하는 모습을 잘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2-3쪽은 일반적인 것이니 뺏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2쪽과 4쪽에 같은 인용문이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4쪽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은 버틀러가 말하는 “젠더 수행성”에서 잘 드러납니다. “젠더 정체성이란 것은 없다; 젠더 정체성은 소위 정체성의 결과물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표현”에 의해 수행적으로 구성된다”(Butler, Gender Trouble, 33).

그 결과로 버틀러에 의하면 다양한 성적 행위들이 다 정상적인 것으로 선언된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2. 다시 생각할 점

몇 가지만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째로 버틀러가 후기 구조주의로 “페미니즘을 재구성하는 데 (feminist reformulation)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후기 구조주의 입장에서 “페미니즘적인 재구성”을 하려고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로 버틀러는 보부아르에 대립하기 보다는 “여성이란 만들어 진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그 토대 위에서 더 나아가는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기존에 페미니스트적인 입장이 버틀러가 말하는 페미니스트적인 주장에 의해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몇 군데서 시사만 할 뿐 구체적으로 그것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둘째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버틀러에 대해서 논의한 논의들이 있는데²²⁾ 그것들과 대화하면서 버틀러의 문제를 드러내는 논의를 하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3. 수정 사항

1쪽 각주 1: Judith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Routledge: New York, 1999), viii.

5쪽 각주 7: Butler. *Gender Trouble*, viii.

요즈음은 대개 Ibid.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곳 모두 Butler. *Gender Trouble*, viii와 같은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8쪽 각주 14: John E. Seery, "Acclaim for Antigone's Claim Reclaimed(or, Steiner contra Butler)," *Judith Butler's Precarious Politics: Critical Encounters*, eds., Terrell Carver and Samuel A. Chambers (London: Routledge, 2008). 62-76.

4. 나가면서

버틀러에 대한 논의를 잘 하셨습니다. 이런 귀한 논의가 계속 되어서 이런 젠더 이델올로지 비판이 학문적으로도 건실하게 이루어지는 일에 의미 있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22) Cf. 임옥희, 『주디스 버틀러 읽기: 젠더의 조롱과 우울의 철학』 (서울: 여이연, 2006); 조현준, "주디스 버틀러의 정치 윤리학: 근본적 상호 의존성과 윤리 폭력에 대한 비판", 『인문학연구』 24 (2013): 29-56; 조현준, 『젠더는 패러디다: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 읽기와 쓰기』 (서울: 현암사, 2014); 정혜옥, "주디스 버틀러와 문화번역의 과제", 『비평과 이론』 20/1 (2015): 141-74; 정혜옥, 『문화 번역과 주디스 버틀러의 이론적 프레임』 (도서출판3)